

甲骨文 ‘于’ 動詞說 再考

류동춘*

— 목 차 —

1. 緒言
2. 于 동사설에 관한 선행연구
3. 문헌 속 于의 용법 검토
4. 복사 속 于의 동사용법 검토
5. 結語

국문초록

본고는 갑골문에 보이는 于의 동사용법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중국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된 개사인 于는 은허 갑골문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羅振玉이 복사에서 于를 처음 고석한 후 楊樹達이 처음 동사설을 제기하였다. 이후 郭錫良, 張玉金 등이 于의 동사용법 용례를 제시하고 개사 용법이 동사 용법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于의 동사 용법 유무는 복사의 해독과 중국어 개사의 기원을 규명하는 데 관건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유형론의 ‘범언어적으로 개사는 대부분 동사에서 문법화되었다’는 이론이 중국어에도 유효한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갑골문 속의 于의 동사 용법에 대한 역대 연구를 개관하고, 시경을 비롯한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역대 연구자들이 동사 용법의 용례로 제시한 복사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검토 결과 복사에는 명확한 동사 용법이라 볼 수 있는 于는 발견할 수 없었다.

키워드: 갑골문, 복사, 于, 개사, 동사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1. 緒言







于是 고대 중국어에서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개사이며 갑골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갑골문 속 용법에 대하여는 현재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다.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于의 품사 문제인데, 복사 속에 대부분 개사로 쓰인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동사 용법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라진다. 동사 용법의 존재 여부는 개사로 쓰이는 于의 기원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于의 개사 용법의 기원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梅祖麟(2004:324)은 개사 于가 漢藏語 속 ‘往’ 의미의 동사에서 어법화되어 출현하였다고 보고 있다. 姚振武(2015:273)도 상고 중국어의 개사는 구체적 변화 경로는 서로 다르겠지만 거의 모두 동사에서 발전해왔다고 보고, 于도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반면, 趙仲邑(1964:109)은 개사 于는 동사기원의 개사 以, 與, 爲 등과 달리, 泛聲¹⁾에서 기원한다고 보았고, 時兵(2003:347)은 개사 于가 원고 중국어의 격조사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만약 于가 갑골에 동사로 쓰인 예가 존재한다면, 개사의 동사기원설을 주장하는 논지에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Hagège(2010:151)의 ‘많은 언어에서 개사는 역사적으로 동사와/나 명사로부터 문법화 과정을 거쳐 파생되었다’는 견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골문에 자주 출현하는 于의 품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갑골문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갑골문 속 于의 동사 용법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 보고, 실제 갑골문을 대상으로 하여 각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실제 문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于의 동사 용법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1) 泛聲은 박자를 맞추기 위하여 의미와 관계없이 추가하는 음절을 가리킨다.

2. 于 동사설에 관한 선행연구

갑골문 속의 于를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은 羅振玉이다. 그는 『殷墟書契考釋』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說文解字』：“于，於也。象气之舒。于從一從一。一者，其气平也。”古金文皆作于(孟鼎散盤等)，或作 (己亥鼎,  鼎),  (且子鼎)，與此同。²⁾
『說文解字』에 이르길: “于는 於이다. 气가 펼쳐지는 것을 본떴다. 于는 一과 一로 구성되었다. 一은 气가 평평한 것을 나타낸다.”라 하였다. 옛 金文들은 모두 于(孟鼎, 散盤等)라고 쓰거나, 作 (己亥鼎,  鼎)나  (且子鼎)로 썼는데 이것과 같은 글자이다.

羅振玉은 金文에 보이는 자형들과 비교하여, 갑골문 속의 글자가 『說文解字』 표제자에 于로 수록된 于임을 정확히 밝혀냈지만, 于가 갑골문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에 대하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갑골문의 于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으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사 용법에 대하여는 학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용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들은 각자 于를 개사, 동사, 접속사³⁾, 허사성형태소⁴⁾ 등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아래에서는 동사설에 관한 주요 견해를 살펴본다.

처음으로 갑골문 속 于를 동사로 풀이한 사람은 楊樹達이다. 楊樹達(1945:22)은 『殷墟書契前編』卷四.21.7⁵⁾의 “貞卿事于秦北宗,不邁大雨?”⁶⁾구절

2) 『殷墟書契考釋』中77葉下「曰于」.

3) 管燮初(1953:41-42)가 처음으로 명사나 수사를 연결해주는 일반접속사 가운데 하나로 于를 거론하였다.

4) 張玉金(2001:95)이 至于를 이음절 介詞로 분류하고 至의 뒤에서 접미사역할을 하는 于를 虛詞性語素라 하였다.

5) 『甲骨文合集』의 38231片에 해당.

6) 이 복사는 <38231>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래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楊樹達이 잘못 읽은 것이다. 裘錫圭(2010:1-2)는 “[□□卜],貞: 卿□史于秦□北宗,不[邁]大雨”로 읽었으며, 확

에 대하여 ‘于是 往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于秦北宗’을 ‘北宗에 가서 秦祭를 지낸다’라 해석했다. 이어 ‘自(蠅)于雇’⁷⁾(殷契類纂)는 ‘(蠅)에서 雇로 가다’로 ‘先于△’(甲編28)⁸⁾은 ‘우선 △로 가다’로 해석하였다. 이어 『詩經』과 金文 등의 자료에 보이는 于의 용례를 이런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詩經』의 예는 <桃夭>의 ‘之子于歸’와 <雨無正>의 ‘維曰于仕’인데 毛傳에서 모두 “于, 往也”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文의 경우는 <令殷>의 “隹王于伐楚白”구절 속 ‘于伐楚白’은 ‘가서 楚白을 정벌하다’ 등이다. ⁹⁾ 이와 같이 楊樹達은 시경과 금문의 자료를 근거로 갑골문 속의 于를 ‘가다’는 의미의 동사로 풀이하였다.

楊樹達 이후에도 郭錫良(1997), 梅祖麟(2004), 裘錫圭(2010), 張玉金(2009/2012) 등(등) 학자들이 복사 속 于의 동사 용법을 제시하며, 卜辭 속의 개사 용법이 동사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郭錫良과 張玉金の 견해를 대표로 살펴보자.

郭錫良(1997:131-138)은 楊樹達의 견해를 따라 『詩經』 毛傳과 鄭箋에서 모두 于를 ‘往’, ‘往取’로 풀이한 것과 金문 속의 용례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갑골문에서 于가 동사로 쓰인 유형을 ‘명사+ 于+ 처소명사’, ‘自+ 처소명사+ 于+ 처소명사’, ‘先+ 于+ 처소명사’, ‘使/令/呼+ 명사+ 于+ 처소명사’, ‘{戔}+ 于+ 처소명사+ 無災’와 ‘步/往+ 于+ 처소명사/동사 田¹⁰⁾’ 여섯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張玉金(2012:79-84)은 裘錫圭(2010)가 ‘使+ 名+ 于+ 처소명사’의 于是 동사로 보지 않는 견해를 반박하고, ‘名+ 于+ 처소명사’와 ‘使/令/呼+ 名+ 于+ 처소

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于와 앞뒤 글자와의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7) 제시된 복사에서 기호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는 어떤 글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글자 하나를 의미한다. ▣는 확인되지 않는 글자가 몇 글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안의 글자는 훼손은 되었지만, 구별이 가능한 글자를 추정하여 쓴 것이다. { } 안의 글자는 문맥 파악에 지장이 없을 경우, 편집의 편의상 자형이 없는 글꼴을 유사한 글자로 대체 표기한 것이다.

8) 『甲骨文集』의 38780片에 해당한다.

9) 楊樹達(1945:22)

10) ‘동사 田’은 ‘于田’ 속의 于를 가리킨다.

명사'의 于는 모두 동사라고 보았다. 이밖에 '比/以...于...'도 연동문으로 보고 于가 동사라고 하였으며, 于의 동사 용법은 殷代 초기에 많이 보이며 말기인 黃組 복사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

동사 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于가 동사이거나 동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 학자도 있다.

戶內俊介(2021:92)가 갑골문 속에서 于는 동사에서 어법화되어 중점표지 개사가 되고, 다시 미래시점 표지의 시간개사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도 갑골문에서 于가 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楊逢彬(2003:282-289)은 于는 복사에서 비교적 발달한 介詞라 하였다. 그러나 殷墟甲骨刻辭 속에서 于가 아직 약간의 동사성과 약간의 어휘 의미가 남아있으므로, 비록 이 시기의 于가 아마도 이미 介詞로 문법화는 되었지만, 이 문법화가 아직 철저하지 못하므로 于를 純粹한 介詞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문헌 속 于의 용법 검토

본 장에서는 동사설 제기의 근거가 되었던 『詩經』을 비롯한 고대 중국어 문헌 속에서의 于의 용법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본다. 楊樹達이 복사 속 于를 동사로 해석하게 된 것이 바로 『詩經』 속 于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주석이었

11) 于의 동사 용법과 개사 용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張玉金(2015:10)은 于가 본래 동사로 '往、到'로 풀이할 수 있는데, 동사 于가 동사 往과 동의어이므로 '往于'로 連用될 수 있었고 뒤에 있는 于가 점차 어법화되어 개사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于가 어법화되면서 于 앞에 往 이외의 다른 이동의미의 동사도 올 수 있게 되었으며, 후에 개사 "于"의 의미가 더 일반화되어 이동의 중점뿐만 아니라, 존재의 위치, 방치의 위치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12) 그는 Takashima(1990)의 관점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于'는 확실히 미래시제 지향이라고 보았으며, 于가 은유성 투사를 통해서 중점표지에서 미래시제 지향 특징을 가진 시간개사로 확장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고, 『詩經』 속 于의 풀이는 같은 시기의 다른 문헌 속 于의 용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복사 속 于의 용법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1) 『詩經』 속의 于

楊樹達이 동사설을 주장했던 중요한 논거는 『詩經』의 于에 대한 ‘往也’라는 주석이다. 『詩經』속 于의 이 용법이 바로 卜辭 속 于의 동사 용법의 잔재이므로 卜辭 속 于가 동사로 사용된 증거라고 본 것이다. 이후의 동사설을 제기한 학자들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하여 楊樹達의 견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詩經』에 보이는 ‘于+동사’구조 속 于를 현대의 주석대로 동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보인다.

胡適은 「談談詩經」에서 『詩經』의 于자를 漢代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으며, 이 글자는 焉자로 보아야 하며 ‘于是’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사람이 焉이 자동사 뒤에 오면 ‘于是’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 구절을 몰랐던 것은 이 문장들이 도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國風·桃夭> ‘之子于歸’는 ‘歸焉’이 도치되어 ‘于歸’가 되었으며, <周南·葛覃> ‘黃鳥于飛’, <大雅·卷阿> ‘鳳凰于飛’, <邶風·燕燕> ‘燕燕于飛’도 모두 도치된 것으로는 ‘在那兒飛’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

于와 焉의 음운상의 관련성과 과연 고대 중국어에서 서로 바꾸어 쓰였나에 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詩經』의 于를 현대의 주석에 얽매이지 않고 ‘往’이 아닌 다른 해석을 시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 와서 『詩經』 속 于를 대상으로 전수 분석을 거쳐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보인다.

劉美娟(2001:44-46)은 『詩經』의 ‘於’와 ‘于’의 用法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于是는 대부분 동사 또는 명사 앞에 사용되었으며, 於是는 대부분 감탄사로 사용

13) 胡適, 「談談詩經」 1925년 武昌大學강연, 『古史辨』第3冊 581-583에 수록.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于是 동사 앞에서 명사화 접두사로 쓰였고, 명사 앞에서는 介詞로 쓰였는데 극히 일부 于是 문장 속에서 단지 音節을 구성하는 요소로만 쓰였다고 보았다.

王依娜(2017:190-194)는 『詩經』의 전수 분석을 통해, 于가 동사 앞에 총 62회 출현하는데, 여기에서 于是 동사 접두사는 아니며, '往'의 뜻을 가진 동사로 보는 것도 회의적이고, 襯音助詞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대 중국어 복합어 조어법, 빈도 그리고 접두사의 특성 등에 근거하여 于가 접두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詩經』과 갑골문 속의 동사로 풀이되는 '于'를 세밀히 분석하여 『詩經』의 '于+V'구조 속 于是 '往'으로 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襯音助詞'의 특성과 『詩經』의 운문체 특징에 근거하여 于를 襯音助詞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기타 문헌 속의 于

범위를 확대하여 『詩經』과 다른 고대 문헌 속 于의 용법을 함께 연구한 예도 있다. 趙仲邑(1964:98-109)은 'V+于+N'구문이 표면적으로는 賓語를 가지고 있는 介詞로 보이지만, '營于桐宮'이 사실은 '營桐宮'인 것처럼, 于是 단지 문중조사(句中助詞)라고 하였다. 그가 于를 문중조사로 보는 근거는 『說文』의 "于, 於也, 像氣之舒于."구절이다. 그는 于是 원래 泛聲이며, 동사에서 기인한 개사인 '以', '與', '爲'와는 다르게 동사와 명사성 성분 사이에 있더라도 반드시 介詞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詩經』의 '王于出征', '之子于征', '燕燕于飛', '叔于田' 등을 예로 들어, 이 가운데의 于是 助詞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런 '于+V'구조 뿐만 아니라, 'V+于+명사'류에서도 于是 句中助詞이며, 介詞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陳祥明(2000:57-60)은 先秦부터 六朝까지의 중국어를 대상으로 빈어와 타동사 사이에 사용된 于를 통시적으로 분석했는데, 이런 구조 속의 于是 助詞로 쓰였으며, 動賓關係를 動補關係로 바꾸는 기능은 없으며 주로 語氣를 완화

하거나 音節을 채우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14)

陳祥明과 趙仲邑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고대 중국어의 ‘于+V’나 ‘V+于+N’ 구문 속 于가 동사나 개사가 아니라 助詞로 쓰이는 경우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3. 복사 속 于의 동사용법 검토

이 장에서는 갑골문 속에서 于가 동사로 쓰였다고 거론된 복사를 살펴본다. 편의상 처음 동사설을 제기한 楊樹達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동사 용법의 유형을 제시한 郭錫良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사설을 정리하여 집대성한 張玉金 세 사람이 제시한 예문을 복사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명사+于+처소명사

- (1) 壬寅卜,王于商.<33124>¹⁵⁾ 1.2 【歷二】 (대조: 辛卯卜, 王入商.<33125> 1 【自歷間B】)
 (2) □午,在商貞:今日于亳,無災.<36567>¹⁶⁾ 5 【黃類】

郭錫良(1997:131)은 (1)의 于가 동사라는 증거는 <33125>와의 대조를 통하여 동사 入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裘錫圭(2010:7)와 張玉金(2012:81)도 郭錫良의 견해에 동의하며, 于를 동사로 보았다. 이들 주장의 주요근거는 복사에서 주어 王과 빈어 商 사이에 위치하는 유일한 단어 于가 동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4) 陳祥明은 이런 예로 ‘胡不相畏? 不畏于天.’ 『詩經·雨無正』, ‘定之方中,作于宮室.揆之以日,作于楚室.’ 『詩經·定之方中』, ‘鄭伯由是始惡于王.’ 『左傳·莊公十一年』을 들었다.

15) 인용된 복사는 于의 품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번역문을 달지 않았다.

16) 이 복사는 “□□王卜,在商, 貞:今[日步]于亳,無災.”의 오기이므로 이 유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다음의 복사를 서로 비교해 보면, 于是 동사가 아니며, 개사인 于 앞에 동사 入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 (3) 貞: 王小生七月于商.<7790> 1 【賓一】
- (4) 貞: 王小生七月入于商.<7791> 1 【賓一】
- (5) 貞: 王于生七月于商.<7793> 1 【賓一】

(4)의 ‘入于商’에서 동사 入을 생략하여, (3)과 (5)의 ‘于商’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1)의 ‘王于商’도 于 앞에 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복사의 형식에 맞는다. 복사에는 동사가 질문의 초점과 관련이 없으면 종종 생략된다. 아래는 낱짜를 달리하며 동일한 내용을 점복한 복사이다.

- (6) 戊辰卜, 旅貞: 王其田于(兗), 無災/戊午卜, 旅貞: 王其于(兗), 無災.
<24457> 2 【出二】

(6)의 복사는 모두 ‘왕이 {兗}에서 사냥을 하면 재앙이 없을까?’를 점복하였지만, 戊辰일에 보이는 동사 田이 戊午일에는 생략되었다.

(1)에 대하여, 戶內俊介(2022:87)는 周忠兵(2009)이 <補2225>와 綴合하여 “壬寅卜: 王于商./王弼商告.”을 근거로 ‘王弼商告’는 ‘王弼于商告’의 생략형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王于商’과 ‘王弼(于)商告’가 對貞¹⁷⁾관계이므로 ‘王于商’은 다시 ‘王于商告’의 생략이 분명하므로 于是 동사가 아니고 告의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라고 하였다. 그는 또 방증 자료로 ‘于商告’라는 구절이 <28100>에도 보인다고 하였다.¹⁸⁾

張玉金(2012:81)은 ‘인간명사+于+地名’ 유형에서 于가 동사로 쓰인 예로 郭錫良이 제시한 <33124>외에 다음 복사를 추가하였다.

17) 복사에서 같은 사안을 긍정형(正問)과 부정형(反問)으로 반복 占卜하는 것을 가리킨다.

18) 제시한 복사는 『甲骨文合集釋文』에서는 “癸卯于商./告.<28100> 3.4 【無名】”로 수록하고 있다. 원편을 확인해 보면, ‘癸卯于商’ 후에 좌측으로 행을 바꾸어 ‘告’가 있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

- (7) 方于覓./方勿于覓.<8648> 1 【典賓】
 (8) 己巳卜,爭貞:方女于敦./貞:方女勿于敦.<11018> 1 【賓一】 【典賓】
 (9) 貞:{旱}于冥./{旱}勿于冥.<190> 1 【賓一】
 (10) 勿于敦.<7815> 1 【賓一】
 (11) 庚戌卜,貞:多羌自川./庚戌卜,貞:羌于美.<22044> 1 【午組】

張玉金은 (7)~(10)의 복사들은 ‘于’ 앞에 부정부사 ‘勿’이 출현하고, 다른 동사가 없고, 한 쌍의 대정복사 속에 생략된 것이 없으므로 ‘于’를 동사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1)은 ‘自川’과 ‘于美’가 대비되는 동일 구조로 보고, 自와 于를 모두 동사로 보아 각각 ‘多羌이 川에서 올 것인가?’, ‘羌이 美로 갈 것인가?’로 풀이하였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려면, 위의 복사들에서 생략된 것이 없어야 하며, 勿은 반드시 동사 앞에만 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 쌍의 對貞복사만 가지고 생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勿이 반드시 동사 앞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 복사를 보자.

- (12) 侑于上甲./勿于上甲.<902正>

(12)는 한쌍의 대정복사로 ‘上甲’에게 侑제사를 지낼지를 점복하는 것이다. 반문복사에서는 勿 뒤에 동사 侑가 생략되었다. 즉 ‘勿于X’형식 속의 于를 무조건 동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명사+于+地名’ 속 于가 반드시 동사인 것이 아니라면 (11)의 自도 를 동사로 볼 당위성이 없다. 더구나 복사에서 自가 동사로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없다.¹⁹⁾ 아래는 (11)과 같은 갑골판에 출현하는 복사이다.

- (13) 丁未卜,自祖乙于祖壬{宰}{牝}./己酉卜,虫歲于祖□六□./己酉卜,惠牛于石甲./己酉卜./庚戌卜,虫司戌下乙./庚戌卜,貞:多羌自川./庚戌卜,貞:羌于美.<22044> 1 【午組】

19) 갑골문에서 ‘自’는 주로 개사로 쓰였고, 명사로 ‘코’의 의미로 쓰였고, 부사로는 ‘친히’라는 의미로 쓰였다. 張玉金이 동사로 쓰였다고 제시한 예문 외에 동사로 쓰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13)에도 (11)과 마찬가지로 自와 于가 모두 보이는데, 앞의 복사에서 ‘自祖乙于祖王’, ‘出歲于祖□’, ‘惠牛于石甲’구절은 복사에 자주 보이는 유형으로 ‘自’와 ‘于’가 모두 개사로 쓰였음이 명백하다. 같은 갑골판에서 한 쌍의 복사에서만 둘 다 동사로 쓰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간명사+于+地名’ 속의 于가 동사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張玉金(2012:80-81)은 이 유형 속에 ‘X+芻+于+地名’을 따로 분리해 거론하였다. 그가 제시한 복사는 다음과 같다.

- (14) 庚辰卜,賓貞:朕芻于斗./ 貞:朕芻于丘{鏹}.<152> 1 【典賓】
- (15) {足}芻于茲{鹿}./{足}芻于申.<249> 1 【典賓】
- (16) 戊戌卜:雀芻于教.<20500> 1 【自小字】
- (17) 貞:弓芻于{箋}./貞:弓芻勿于{箋}.<151> 1 【賓一】
- (18) 雍芻于秋./雍芻勿于秋.<150> 1 【典賓】

張玉金(2012:80)은 ‘芻’는 ‘짚을 베고 가축을 치는 사람’이고 그 앞의 글자(X에 해당)는 地名으로 보았다. 芻가 파견되는 지역에 따라 ‘X芻’라고 부르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X+芻+于+Y’라고 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雀芻于教’는 ‘雀땅의 芻가 教땅으로 가야 하는가?’이다. 張玉金은 이 복사들도 ‘인간명사+于+地名’유형과 마찬가지로 생략된 것이 없고, 于가 동사이라서, 만약 부정부사를 넣는다면 于 앞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정사는 반드시 동사 앞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초점 성분 앞에 온다. 아래 복사는 초점이 되는 명사 앞에 부정사가 온 예이다.

- (19) 貞三十伐下乙./勿三十伐下乙.<892>

(19)는 대정복사인데, 부정사가 명사인 ‘三十伐’ 앞에 온다. 그러므로 부정사가 于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于를 동사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복사 속의 ‘X+芻’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芻의 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우선 (14)~(18)의 복사는 選貞과 對貞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선정복사

는 ‘X+ 芻+ 于+ Y’에서 Y를 바꿔가며 접복하는 것이고, 대정복사는 ‘X+ 芻+ 于+ Y’와 부정형인 ‘X+ 芻+ 勿+ 于+ Y’로 접복하는 것이다. 芻는 복사에서 동사와 명사로 쓰이며, 동사는 ‘풀을 베다, 방목을 하다’ 등의 뜻이고, 명사는 ‘芻행위를 하는 자, 芻하는 곳’의 뜻이다. ‘X+ 芻’는 芻의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인 경우에는 앞의 X는 사람이 되고, 명사인 경우는 X를 동사로 보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면, 선정복사 속 ‘朕芻于斗’는 ‘朕²⁰이 斗에서 芻하다’이고, 대정복사인 ‘雍芻于秋’²¹는 ‘秋에서 芻를 雍하다’ 또는 ‘秋에서 雍芻를 하다’이다.

2) 自+처소명사+于+처소명사

(20) 自{蠅}于屨 『殷契類纂』<24347> 2 【出二】

楊樹達이 제시한 『殷契類纂』의 복사는 <24347>로서 전문은 “辛丑卜, 行貞, 王步自□于屨, 亡災./ 癸卯卜, 行貞, 王步自屨于{鼓}, 亡災. 在八月. 在自屨./ 己酉卜, 行貞, 王其步自{鼓}于麥, 亡災”이다. 이런 유형은 복사에 많이 보이는데, 주로 동사 步와 함께 출현한다. 郭錫良(1997:132)은 이 유형의 복사로 다음 예를 제시하였다.²²

(21) 乙酉卜, 行貞: 王步, 自邁于大, 無災. 在十二月<24238> 2 【出二】

(22) 丁巳卜: 王步, 自莫于轡, 若.<33147> 1.2 【歷二】²³

(23) 乙丑貞: 今日王步, 自轡于{扔}.<33147> 1.2 【歷二】

郭錫良(1997:132)은 (21)을 위와 같이 끊어 읽어, ‘王步, 自邁于大’를 ‘왕이

20) 崔恒昇(1992:268-269)은 朕이 1인칭과 인명, 지명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21) 복사에 “雍田于京.<33209>”이 보이는데, 雍田과 비교해 보면 雍芻에서 芻는 방목지를 나타내는 것 같다.

22) 다음 복사도 예의 하나이다. 癸卯卜, 行貞, 王步自屨于{鼓}, 亡災. 在八月. 在自屨.<24347> 2 【出二】

23) ‘丁巳卜’은 ‘丁巳貞’의 오기이다.

출행을 가는데, 邁에서 大로 가다'로 풀이하고, 于是 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끊어 읽기는 복사의 일반적 문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步'와 '自邁于大'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步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이 뒤에는 항상 기점이나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구가 나온다. 다음은 裘錫圭(2010:4-5)가 제시한 복사이다.

(24) 辛酉卜, 尹貞: 王步自商, 無災. <24228> 2 【出二】

(25) 癸未卜, 口貞: 王其步自尋, 無災. <24399> 2 【出二】

그는 이 두 복사의 步 뒤에 나오는 自는 기점을 나타내는 개사일 수밖에 없으므로, (20)의 '步自...于...'속 于도 개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²⁴⁾

다음의 복사는 위의 <33147>과 같은 갑골판에 보이는 예이다.

(26) 壬戌貞: 乙丑王步自轡. <33147> 1.2 【歷二】

(26)은 (22)의 丁巳일과 (23)의 乙丑일 사이에 행한 점복으로 乙丑일 출행의 기점만을 묻고 있다. 이 복사들에서 自가 개사이고, 이어 종점을 나타내는 于도 당연히 개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3) 先+于+처소명사

(27) 口未卜, 令雀先于口 <22315>²⁶⁾ 1 【自小字】

24) 裘錫圭(2010:5)는 '自...至(于)'의 '至(于)'도 개사인데, 이것과 비교해 보아도 于가 개사이며, 于의 목적어는 상황이 出行과정에서 머무는 장소를 나타내며, 최종 종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5) 어순을 다르게 하여 동사 步 대신 至를 사용한 복사도 보인다. 여기에서 至를 동사로 보는 견해와 '至于'를 개사로 보는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自可至于{寧}, 偏{御} □ <27991> 3.4 【無名】"

26) 楊樹達은 <甲218>로 인용하였다.

(27)은 楊樹達이 ‘先于□’에서 先을 부사로 보아 ‘우선 □땅으로 가다’로 풀이하였다. 郭錫良(1997:132)은 이 복사 외에 다음의 예를 추가하였다.

(28) 從向歸,乃先于孟.<29117> 3.4 【無名】

그는 ‘先于孟’도 앞의 양수달 해석과 같이 ‘우선 孟에 가다’로 풀이하고, 동사를 생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郭錫良은 위의 복사들의 先을 모두 부사로 보았지만, 복사에서 先은 동사로도 많이 쓰인다, 沈培(1992:41-42)는 다음 복사에서 先이 ‘先行’의미의 동사로 쓰였다고 하였다.

(29) 貞;勿呼衆人先于諄.<41> 1 【典賓】

裘錫圭(2010:5)도 沈培의 견해에 동의하며 다음 두 복사에서도 先이 동사로 쓰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先자는 윗부분이 止(趾)모양으로 자형으로 보아도 ‘先行’이라는 동사가 본의일 것이라 하였다.

(30) 丁酉卜,馬其先,弗悔.<27946> 3.4 【無名】

(31) 馬其先,王兌從,不邁大雨.<屯1127>

(30)에는 先 이외에 동사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31)에서 先과 ‘따르다’는 의미의 동사 從이 대비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先은 ‘선행하다’로 봐야한다. (27)과 (29)를 다음 복사와 비교해 보자.

(32) 勿呼雀禱于西.<10976正> 1 【賓一】

(27)의 ‘令雀先于□’, (29)의 ‘呼衆人先于諄’, (32)의 ‘呼雀禱于西’는 첫째 동사 令과 呼와 둘째 동사 先과 禱가 각각 서로 다르지만, 모두 ‘令/呼X동사Y’ 구조이다. 서로 비교해 보면 禱와 마찬가지로 先을 동사로 보아야 하고, 禱 뒤의 于가 개사이듯이 先 뒤의 于도 개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使/令/呼+명사+于+처소명사

- (33) 庚申卜,古貞:王使人于{戴},若<376正> 1 【典賓】
 (34) 貞:呼去伯于冥<635正> 1 【典賓】
 (35) 丙戌卜,貞:令犬延于京<4630> 1 【賓三】

郭錫良(1997:132)은 (33)~(35)이 모두 겹어문이고 于가 둘째 동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裘錫圭(2010:6-8)는 이 가운데 ‘令/呼+ 명사+ 于+ 처소명사’ 유형만 于가 동사이고, ‘使+ 명사+ 于+ 처소명사’의 于是 동사가 아니고 개사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使가 갑골문에서는 사역의 의미보다는 ‘과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럼 아래에서 우선 ‘使+ 명사+ 于+ 처소명사’ 속의 于에 관하여 살펴보자.

張玉金(2012:79-80)은 裘錫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33) 외에 다음의 복사를 추가하여 于가 동사로 쓰인 예로 제시하였다.

- (36) 庚申卜,古貞:王使人于□,若.王占曰:吉,若./貞:勿使人于□,不若.<376正>²⁷⁾ 1 【典賓】
 (37) 乙酉卜,賓貞:使人于河,沈三羊,冊三牛.三月.<5522正> 1 【典賓】
 (38) 貞:使人于岳./貞:勿使人于岳.<5520> 1 【典賓】
 (39) 貞:婦好使人于眉.<6568>1 【典賓】

張玉金은 (36)의 ‘王使人于□’이 ‘왕이 □땅에 가서 다시 사람을 과견하다’는 의미라면 ‘于’를 개사로 볼 수 있겠지만, 殷王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사람을 과견하는 것은 이치상 맞기 때문에 ‘殷王이 사람을 □땅에 과견하다’라고 봐야한다고 하였다. (37)도 張玉金은 ‘殷王이 사람을 黃河가로 보내고, 이 사람이 황하가에서 양과 소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貞:使人往于唐.<5544>”을 예로 들어 은왕이 직접 어디로 가서 다시 사람을 과견하지 않은 증거라고 하였다. 왕이 직접 갔다면 ‘于’ 앞에 ‘往’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

27) 張玉金이 郭錫良의 예문에 대정복사의 반문복사 부분을 추가하였다.

고 하였다. 그는 복사에 ‘使人于某地’가 56회나 출현하는데, ‘使人往于唐’은 단 하나만 보이는 것은 ‘于’가 이미 일반적으로 개사로 쓰여서 동사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시 동사 ‘往’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往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생략은 成套卜辭²⁸⁾에서 앞뒤 문맥에 따라 일어나는데, ‘使人于某’가 있는 성투복사에서는 ‘使人往于某’구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張玉金은 使를 ‘부리다’는 의미로 보고, 于를 사역문의 두 번째 동사로 보았지만, 구석규의 풀이대로 使를 ‘파견하다’로 보고 왕이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張玉金이 <5544>에서 ‘于’가 개사로 자주 쓰여서 혼동이 될까봐 동사 ‘往’을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이 복사들은 모두 초기 복사로서 이와 같은 선후관계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략이 반드시 성투복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張玉金의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禰健聰(2009:37-38)은 ‘使人’을 제사 활동으로 보고 ‘使人于某地’는 ‘어느 지역에 대하여 혹은 어느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다’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음의 복사를 예로 들었다.

(40) 貞:使人于岳.<5521> 1 【典賓】

(41) 乙酉卜,賓貞:使人于河,沈三羊,冊三牛.三月.<5522正> 1 【典賓】

(40)과 (41)에서 岳과 河는 제사 대상이고, ‘使人’은 제사 활동으로서 하나의 단위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禰健聰의 견해대로 ‘使人’은 확실히 제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복사를 보자.

(42) 寮[于]岳./使人于岳.<5518> 1 【賓一】

(43) 貞:出于唐/ 貞:使人往于唐.<5544> 1 【典賓】

(43)은 기존의 예문에 같은 갑골판의 복사를 추가하였다. (42)속 두 복사는

28) 하나의 갑골판이나 여러 갑골판에 새겨진 같은 사안을 점복한 복사를 가리키는데, 이 복사들은 복사 옆에 새겨진 兆序(序數라고도 함)의 순서가 서로 연결된다.

선정복사인데, 제사동사 ‘寮’와 ‘使人’이 모두 ‘于岳’ 앞에 나온다. (43)도 선정복사인데, 제사동사 ‘丕’와 ‘使人’, ‘往’이 똑같이 ‘于唐’ 앞에 나온다. 복사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使人’을 제사 행위로 볼 수 있다.²⁹⁾ 唐과 岳은 모두 제사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43)의 ‘使人’도 ‘往’과 함께 하나의 제사 행위로 본다면, ‘于X’는 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나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구가 된다. 다음 복사를 보자.

- (44) 己未卜, {古} 貞: 我三史使人./ 貞: 我三史不其使人./ 貞: 畫使人./ 貞: 畫不其使人. <822正> 1 【賓一】
 (45) 貞: 上甲使五牢. <27070> 3.4 【何二】

(44)는 ‘使人’의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므로 꺾어문으로 볼 수 없다. 만약 ‘使人’을 하나의 제사 활동으로 본다면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 (45)에는 ‘使’만 출현하는데, ‘上甲에게 五牢의 제물로 使제사를 지낼까요?’로 풀이 할 수 있으며, ‘使’가 제사명칭으로 쓰였다.

다음으로 ‘令+ 명사+ 于+ 처소명사’ 속 于를 보자.

郭錫良(2012:132)이 예로 든 (35)에 대하여, 裘錫圭(2010:2)는 갑골문 圖版을 보고, 같은 유형의 복사인 “丙戌卜, 貞: 勿令犬延./ 貞: 勿令犬延田于京. <英³⁰⁾ 8344>³¹⁾”과 비교하여 犬延과 于 사이에 田이 들어가야하고, 于는 동사가 아니라 개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裘錫圭(2010:7)는 ‘令+ 명사+ 于+ 처소명사’ 유형 속의 于가 확실히 동사로 쓰인 예도 있다면서, 다음의 복사를 제시하였다.

- (46) 辛亥卜, 出貞: 令莫伯于{昇}. <英1978>

29) 孟世凱(2009:357)는 往의 의미항목을 ‘去, 到’와 ‘借爲禳’ 두 가지로 두고 있다. 다음은 往이 제사명칭으로 쓰인 예이다. “甲戌卜, 貞: 婦好不往于妣庚. <2643> 1 【典賓】”, “乙巳貞: 其往于夔無禍, 茲用. <屯2123>” 복사의 妣庚과 夔는 모두 죽은 사람으로 제사대상이므로 往은 제사명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0) 英은 『英國所藏甲骨集』의 약칭이다.

31) <40075> 1 【賓三】과 같은 편이다.

(47) 貞:令畱伯于敦.<英1977> 【出二】

裘錫圭(2010:7-8)는 동사 令이 “乙亥貞:王其夕令¹侯商于祖乙門./于父丁門令¹侯商.<屯1059>”에서처럼 冊命류의 의미를 갖는 복사에서는 令을 진행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로 于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석규는 책명류와 ‘명령하다’의 구별 조건은 설명하지 않고 (46)과 (47)의 令은 ‘명령하다’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于 뒤의 지명은 명령을 내리는 장소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두 복사에서 令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두 ‘某伯’이므로 <屯南1059>에 등장하는 ‘¹侯商’과 차이가 없으므로, 冊命을 내리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張玉金(2012:80)이 추가로 제시한 다음 복사를 보자.

(48) □亥卜,賓貞:令{弘}于{裁}.<4770> 1 【賓一】

(49) 庚辰卜,令疋于成.<4584> 1 【賓一】

(50) 乙巳貞:令多射于{虜}.<英2422>

(51) 貞:令射{闡}于微.<英528>

(52) 乙卯卜,我貞:令豕翌庚于雀.<21631> 3.4 【無名】

張玉金은 (48~(52))은 모두 ‘令+人名+于+地名’의 구조로 于가 ‘가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고 보았지만, 이 복사들의 令도 사역의 표지가 아니라 ‘책명을 내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令’만 출현하는 다음의 복사들을 보면 ‘令’이 반드시 ‘명령하다’는 의미로 겸어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53) 乙巳卜,惟商令./ 乙巳卜,惟豆令.<屯740>

(53)은 표지 惟에 의해 빈어가 전치되었는데, 원래 문장은 ‘令商’과 ‘令豆’로 다음에 다른 성분이 없이(혹은 다음 성분을 생략하고) 점복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呼+명사+于+처소명사’ 속 于를 보자.

(34)의 ‘呼去伯于冥’을 郭錫良(1997:132)은 ‘去伯을 冥地로 가게하다’로 풀이했고, 裘錫圭(2010:8)도 于를 동사로 보았고, 沈培(1992:129-130)를 인용하여 다음 복사의 于도 모두 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54) 貞:方女呼于敦./勿[]./貞:[方]女于敦./勿于敦.<7852正> 1【賓一】

(55) 貞:呼取牛./呼于唐.<8808正> 1【賓三】

裘錫圭(2010:8-9)는 (54)의 ‘呼于敦’은 ‘敦에서 누구를 부르다’의 뜻이 아니고 ‘누구를 敦땅에 가게하다’의 뜻이라 보았다. (55)도 대정복사로 ‘呼取牛’는 ‘사람을 시켜서 소를 가져오라’는 뜻이고, ‘呼于唐’은 ‘唐으로 가서 소를 가져오게하다’는 뜻으로 보았다. ‘方女呼于敦’은 ‘呼+명사+于+처소명사’구조와 같은 ‘呼方女于敦’으로 보아 于를 동사라고 하였다.³²⁾ 裘錫圭의 이 풀이는 沈培(1992:129)의 于가 ‘到…’의 뜻이라는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사 于가 복사에서 중점 뿐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于를 반드시 동사로만 볼 필요는 없다.³³⁾ 뿐만 아니라 沈培의 ‘到…’라는 풀이는 동사라는 뜻이라기 보다 ‘到…’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즉 중점을 표시하는 개사라는 의미를 볼 수도 있다.³⁴⁾ 沈培(1992:127)는 于가 명확히 개사로 쓰였을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 ‘在…’와 ‘到…’로 구별하여 풀이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사 于도 문법화되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于의 동사 용법을 부정하는 禰健聰(2009:36)은 (34)에 대하여 ‘상왕이 부하

32) (54)에 대하여 張玉金(2012:80)도 ‘方女呼于敦’은 ‘方女’가 겸어로 ‘呼’의 앞으로 도치되어 원래는 ‘呼方女于敦’일 것이라 보았다. 같은 갑골판에 ‘方女于敦./勿于敦.’이 보이므로 ‘于敦’한 것은 ‘方女’ 이라는 것이다.

33) 裘錫圭(2010:11)도 해석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呼당하는 사람 앞에 왜 呼가 없는지?’ ‘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의미상의 차이는 무엇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34) 沈培(1992:129-130)는 복사 속의 于는 후대처럼 ‘從…’, ‘自…’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在…’와 ‘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裘錫圭(2010:7-8)에서 인용한 예문 속의 于도 동사로 확정할 수는 없고 동사적 의미가 강하다고만 하였다.

에게 시켜서 冥地에서 伯을 쫓아 내는 행동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呼와 去伯 사이에 겹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복사를 보면, 呼 뒤에 겹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오는 예가 많이 보인다.

- (56) 辛酉卜, 爭貞: 呼伐工方, 受屯[又]. <6229> 1 【典賓】
 (57) 乙巳卜, 爭貞: 惠王往伐工方, 受屯又. <6214> 1 【典賓】
 (58) 貞: 呼伐工方. <6245> 1 【典賓】
 (59) 貞: 勿呼伐工方, 弗其受屯又. <6257> 1 【典賓】

(57)은 왕이 직접 가서 工方을 정벌하기 때문에 呼가 나올 수 없는데, 누구를 시켜서 정벌을 진행하는 (56), (58), (59)는 모두 呼와 伐 사이에 겹어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禰健聰의 풀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去伯’의 행위와 유사한 예가 있다. 다음의 복사를 보자.

- (60) 王去束于敦. <7861> 1 【典賓】
 (61) 王往去束于敦. <5127> 1 【賓一】
 (62) 王往去束, 若. <5130> 1 【典賓】

裘錫圭(2010:5-6)는 (60)~(62)를 비교해 보면 ‘去束’는 은왕이 敦땅에 가서 하려는 모종의 행위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于는 개사이며, 이와 유사한 복사로 다음이 있다.

- (63) 于敦去火. 六月. <7966正> 1 【賓三】

이 복사는 敦땅에서 ‘去火’하는 것을 점복하였다. ‘于敦’은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이므로 ‘去火’의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개사구가 동사 앞에 있는 예가 또 있다. 다음의 복사는 沈培(1992:130-132)가 ‘到…’의 의미의 于자구조는 원래 동사 앞으로 갈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 (64) 貞: 日以來迺往于敦. / 貞: 于敦大鄒. <11406> 1 【典賓】

사실 이것을 예외로 볼 것이 아니라, ‘于敦’을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로 보면 전체 복사의 내용에도 맞는다. 즉, 첫째 복사의 ‘往’ 뒤에서 중점을 표시하는 ‘于敦’은 당연히 ‘往’ 앞으로 갈 수 없지만, ‘于敦’이 장소를 나타나게 되므로 ‘在…’의 의미가 되며, 동사 앞에 위치해도 어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점복의 순서로 보아도 ‘于敦’을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로 보는 것이 시간순서와 논리에 부합한다. 앞 복사의 ‘往于敦’은 敦으로 가는 것을 점복하는 것이고, 뒷 복사의 ‘于敦’은 이미 敦에 도착한 후에 敦에서 ‘大芻’를 할 것인가를 점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54)는 ‘呼方女于敦’이 ‘敦땅에서 方女를 부르다’로 볼 수 있으며, (55)는 ‘呼取牛’에 겹어가 생략되었고, ‘呼于唐’에도 겹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또 ‘取牛’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呼X取牛’와 ‘呼X取牛于唐’이 될 것이다. 따라서 (54)와 (55)의 于도 개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복사 이외에 張玉金(2012:80)은 다음의 복사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65) 呼牧于朕芻.<148> 1 【典賓】

張玉金은 (65)의 ‘牧’이 ‘去伯’과 마찬가지로 인명이나 관명이고 ‘朕芻’는 ‘왕 소유의 풀을 베는 노예’인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있는 곳 또는 지명일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牧을 朕芻의 소재지로 파견하다’로 풀이하었다. 그러나 (65)도 呼는 ‘부르다’로 보고, 朕芻를 장소로 보면 ‘朕芻에서 牧을 부르다’이지만, 朕을 지명으로 芻를 동사로 보면, ‘牧에게 朕에서 芻하라고 하다’로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于를 개사로 볼 수밖에 없지만, 다음 복사와 비교해 보면 후자의 풀이가 더 설득력이 있다.

(66) 呼婦奏于兆宅./勿呼婦奏于兆宅./.<13517+ 乙6087> 1 【賓一】

(66)은 대정복사로 ‘婦奏에게 兆(물가)에서 거주하라고 할까요?’를 점복한

것이다. ‘于兆’는 개사구로 동사 宅 앞에 부사어로 쓰였는데, ‘于朕芻’과 ‘于兆宅’이 동일한 구조에 출현하므로 개사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遯+于+처소명사+無災

(67) 丁丑卜, 翌日戊王其遯于囚無災. 于桮無災. 于喪無災. 于孟無災. 于宮無災. <28905> 3.4 【無名】

郭錫良(1997:132)은 복사에 ‘于某無災’가 많이 보이고, 일반적으로 복사에서 술어 동사는 생략하고 개사구만 남기는 것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67)의 于是 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67)에 대해 禰健聰(2009:34)은 일반적으로 복사에서 ‘述于某地’가 ‘無災’와 호응하고 ‘遯于某地’는 ‘往來無災’와 호응하므로 (68) 참고하여 (67)의 遯는 述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⁵⁾

(68) 戊申卜, 貞: 王田于孟, 往來無災. / 己酉卜, 貞: 王遯于召, 往來無災. <36663> 5 【黃類】

(68)의 ‘田于孟’와 ‘遯于召’는 같은 구조로 于是 모두 개사이다. (67)은 (68)과 비교해 보면, “丁丑卜, 翌日戊王其遯于囚, 無災. / 于桮, 無災. / 于喪, 無災. / 于孟, 無災. / 于宮, 無災.”로 끊어 읽어야 한다. 둘째 복사부터 앞의 ‘翌日戊王其遯’ 부분을 생략하고 개사구만 남긴 것이다. 그리고 郭錫良(1997:132)의 견해와 달리, 복사에서 동사 부분을 생략하고 개사와 목적어만 남기는 예도 많이 보인다. 아래의 복사는 (67)과는 동사와 개사만 다르고, 나머지 생략 형식은 같은 것이다.

(69) 翌日壬王其省田, 從宮. 從桮. 從喪. 從孟. <29156> 3.4 【無名】

35) 裘錫圭(2010:3)는 遯가 원래 遯으로 구성되었고, 戈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遯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巡行이나 田遊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6) 步/往+于+처소명사/동사 '田'

- (70) 辛酉卜, 爭貞: 今日王步, 于敦, 無禍. <7957> 1 【典賓】
- (71) 丁卯卜, 爭貞: 王往, 于敦, 不左. <7945> 1 【典賓】
- (72) 貞: 王往, 出, 于敦 / 貞: 王弗³⁶⁾往, 出, 于敦. <7943> 1 【典賓】
- (73) 丁未貞: 王往于田, 無災. <557> 1 【賓三】

郭錫良(1997:132)은 (70)~(73)에서 步는 '出行', 往은 '去往'의 의미로 모두 장소 빈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이며³⁷⁾, 于是 '去到'의 의미로 어디로 간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드시 장소 빈어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于가 步, 往과 연동문을 형성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가다'는 의미의 동사 두 개를 연용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며, 특히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는 복사에서는 더구나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갑골문에 유사한 의미의 동사를 연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동사+于' 속의 于를 개사로 판정하는 것에 대하여, 郭錫良(1997:135)은 于가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往' 의미의 동사 뒤에 쓰이면 의미가 변하지 않아 동사이고, '入', '來', '至' 등의 운동 방향이 반대인 '來' 의미의 동사 뒤에 쓰이면, 于의 의미가 변화되고 추상화되어 개사화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사의 운동 방향과 관계없이 '來于'의 于도 '步于'의 于와 같이 뒤에 나오는 장소명사가 종점임을 나타낸다. 다음의 복사를 보자.

- (74) 貞 : 方允其來于沚. <6278> 1 【典賓】

(74에서 方이 도착한 곳은 沚이다. 來의 방향과 관계없이 于가 도착 장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광석량의 동사의 운동 방향으로 于의 품사를 확정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으며, 방향에 관계 없이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로 보아야 할

36) <甲骨文集釋文>에는 勿로 되어있다.

37) 그러나 楊逢彬(2003:53)은 장소빈어나 장소보어를 가지는 及物趨止동사로 往, 涉, 入, 在 등을 들고 있다.

것이다. 다음은 裘錫圭(2010:15)가 제시한 복사이다.

(75) 癸卯卜, 穀貞: 呼弘往于_隹比乘/ 癸卯卜, 穀貞: 勿呼弘往比乘于_隹. <667
正> 1 【典賓】

裘錫圭는 이 복사는 대정복사인데, 正問복사에서 보면 于를 동사로 볼 수도 있지만, 反問복사를 보면 于가 개사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³⁸⁾ 裘錫圭의 분석대로 呼의 대상은 弘이고 시킨 동작은 往과 比이며, 比의 빈어가 乘이고 ‘于_隹’는 개사구로 往의 목적지이자 比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개사구이므로 위치가 자유롭게 ‘比乘’의 앞뒤로 올 수 있는 것이다. 于가 동사라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동사를 배열하는 연동문의 어순과는 맞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郭錫良이 제기한 ‘步于’와 ‘往于’등 ‘동사+于’ 유형은 연동문의 형식이 아니라, 于를 개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73)의 ‘于田’을 郭錫良(1997:132)은 동사로 보고 ‘가서 사냥을 하다’는 의미라고 하였는데, 앞의 往과 연결하여 읽어야 하며, ‘于田’을 개사구로 보아야 한다. 다음 복사를 보자.

(76) 王其往田于{柎}<28904> 3.4 【無名】
(77) 戊辰卜, 旅貞: 王其田于{柎}, 亡災<24457> 2 【出二】
(78) 乙卯卜, 賓貞: 王往于{柎}, 若. 六月<8039> 1 【賓三】

(76)~(78)은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往田于{柎}’, ‘田于{柎}’, ‘往于{柎}’이 출현하는데, 田이 ‘사냥하다’는 의미의 동사이고, 往은 ‘가다’는 의미의 동사이며, 往田은 두 동사를 연용하여 ‘가서 사냥하다’는 의미의 ‘동사+동사’구조로 쓰였다. 세 복사에서 ‘于{柎}’은 모두 동작의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구로 보아야 한다. 往田과 같이 연용되는 동사+동사 구조로는 往省, 往陷 등이 복사에 자주 보인다.

38) 裘錫圭는 正面복사와 反面복사라고 하였는데, 두 복사가 모두 <667>의 正面에 있으므로 正問복사와 反問복사의 오기인 것 같다.

7) 比/以…于…

- (79) 壬戌卜,貞:亞{旒}比受于方.<28011> 3.4 【何二】
- (80) 辛巳貞:以{畢}以畫于{蜀},乃奠.<英2413>

張玉金(2012:81-82)은 (79)와 (80)을 于가 동사로 쓰인 연동문으로 보았다. (79)의 ‘比’는 ‘聯合’, ‘配合’의 뜻이고, 受는 인명으로, 方은 적대국으로 보았다. 즉 ‘比受于方’을 ‘受와 연합하여 方으로 가도 괜찮은가?’로 풀이하였다. (80)의 ‘{畢}以畫于{蜀}’에서 ‘{畢}’과 ‘畫’은 인명이고, ‘{蜀}’은 지명으로 보고 ‘以+ 인간명사’ 뒤에는 대개 동사가 오므로 ‘于’도 동사라고 추정하였다. ‘{畢}以畫于{蜀}’은 {畢}이 畫를 데리고 {蜀}지역으로 가다’로 본 것이다.

우선 ‘比…于…’ 유형을 살펴보자.

張玉金(2012:82)은 이 유형의 다른 예로 다음 복사들을 들고 있다.

- (81) 丙寅卜,貞:令逆比盡于{燕}.<4915> 1 【賓一】
- (82) 丙寅卜,貞:勿{恙}令逆比盡于{燕}.<4917> 1 【賓一】
- (83) 勿呼比求于不.<891> 1 【賓一】
- (84) 癸卯卜,殷貞:呼{弘}往于佳比{至}./癸卯卜,殷貞:[勿]呼{弘}往比{至}于佳.<667> 1 【典賓】

張玉金은 여기에서 ‘比’ 뒤의 盡과 求가 모두 인명이고, 于는 동사로 보았다. 그런데 張玉金(2012:82)이 (84)속 앞의 于는 개사 같고, 뒤의 于는 동사 같은데, 만약 둘을 같이 봐야 한다면 개사로 봐야 할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결국 ‘比…于…’ 유형 속의 于를 모두 동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84)는 대정복사인데, 대정복사에서 어순이 바뀌어도 품사는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于佳’의 위치가 ‘比{至}’의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연동문이 아니고 ‘于佳’가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복사도 같은 예이다.

- (85) 甲申卜,殷貞:呼婦好先登人于龐.<7283> 1 【賓一】

(86) 乙酉卜, 殷貞: 勿呼婦好先于龐登人. <7284> 1 【典賓】

(85)와 (86)를 보면, 개사구 ‘于龐’이 (86)은 ‘登人(사람을 모으다)’ 앞에, (85)는 ‘登人’ 뒤에 위치한다. 于를 동사로 보면 (85)는 사건발생의 순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복사들에서 ‘于X’를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구로 볼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以…于…’유형을 살펴보자. 張玉金(2012:82)은 이 유형의 예로 다음 복사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87) 辛未貞: 王令以戣于{鄆}/辛未貞: 邁以新射于{鄆}. <32997> 1.2 【歷二】

(88) 祥以芻于{噠}. <104> 1 【賓三】

(89) 甲寅卜, 爭貞: {堆}以逸于{燕}/貞: {堆}以逸于{燕}. <838> 1 【典賓】

張玉金은 이 복사들에서 以는 모두 ‘데리고’의 뜻이고, 于是 ‘가다’는 뜻의 동사로 보았다. (89)속 ‘以逸于{燕}’의 逸은 동사가 명사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以逸于{燕}’은 ‘도망자를 {燕}지역으로 데려갈까?’로 보았다. ‘以’는 자형 구조를 보면, 원래 의미가 ‘바치다’이다.³⁹⁾ 복사에는 ‘以’ 뒤에 명사만 나오는 예가 많이 보인다. 다음의 복사를 보자.

(90) 貞: 勿呼以宰. <6257> 1 【典賓】

(91) 乙巳卜, 何貞: 亞方以羌, 其禦用. <補9681>

(90)은 (59)의 “貞: 勿呼伐工方, 弗其受出又.”속 ‘勿呼伐工方’에서 겸어가 생략되었듯이 呼와 以 사이에 겸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宰는 전쟁포로, 혹은 노예이므로 ‘누구에게 노예를 바치라고 하지 말까요?’라고 풀이할 수 있다. (91)의 ‘亞方以羌’을 ‘亞方이 바친 羌족 포로’ 혹은 ‘亞方이 羌족 포로를 바쳤는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以를 ‘바치다’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위의 복사에서 ‘于X’는 모두 개사구로 바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9) 孟世凱(2009:164)는 以의 의미를 ‘用’, ‘及’, ‘祭名’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가 연동문에서 ‘데리다’의 뜻으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 (92) 師般以人于北奠次./人于{寧}次./于{岐}次.<32277> 1.2 【歷草】
 (93) 壬寅卜,賓貞:王往以衆黍于罔.<10> 1 【賓三】

(92)는 선정복사로 둘째 복사부터는 많은 성분이 생략되었다. 복사의 의미는 ‘師般이 사람을 데리고 北奠에 주둔할까요?’이다. (93)의 ‘王往以衆黍于罔’은 ‘상왕이 가서 衆人을 데리고 罔에서 기장을 심을까?’이다.

5. 結語

于의 동사 용법을 楊樹達이 처음 제기한 이후로,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문례의 분석과 비교, 양적 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왔다. 郭錫良(1997:134)은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총 9000여 회 출현하는데 해독이 불가능한 3000여 회를 제외한 5000여 회 용례 가운데 5% 정도의 于가 동사로 쓰였다. 이후 張玉金(2012:82)은 은허갑골문 속에 ‘于’가 총 11022회 출현하는데, 문맥이 확인되지 않는 2810회를 제외하고 8212회를 분석하여 동사로 쓰인 것이 166회로 전체의 2%라고 하였다.⁴⁰⁾ 최근 徐清(2021:1,18)은 『甲骨文合集』 『甲骨文合集補編』 『小屯南地甲骨』 『甲骨綴合集』 『甲骨綴合續集』 『甲骨綴合彙編』等 23종 甲骨著錄書와 2020年 6月과 그 이전에 先秦史研究室網站에 보이는 綴合材料에서 “于”가 들어간 卜辭 총12348 條를 추출하였고, 이 가운데 동사로 쓰인 것이 175조로 전체의 1.4%라고 하였다.⁴¹⁾ 점차 동사 용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위의 학자들은 모두 동사 용법의 존재를 주

40) 張玉金은 분석대상인 은허갑골문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41) 徐清(2021:18)은 張玉金의 견해를 따라, 겹어문 ‘使/令/呼+ 명사+ 于+ 처소명사’와 단문 ‘인간명사+ 于+ 地名’과 연동문 ‘以…于…’, ‘比…于…’ 세 유형 속의 于를 동사로 보았다.

장하고 있다. 복사 속 于의 용례뿐만 아니라, 다른 개사와의 분포 비교 그리고 개사 발생의 보편적 경향 등을 참고하여, 복사의 于에 동사 용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張玉金(2009:21-22)은 복사에서 아직 동사로만 쓰이던 以나 爲가 춘추전국 시기에도 여전히 개사성이 강하지 않고 동사 용법도 가지고 있는데, 于는 복사에서 이미 매우 성숙한 개사로서 상용되었고, 春秋戰國시기에는 순수한 개사로서 여전히 상용된 것으로 보아, 복사에 동사 용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을 통해 현재까지 복사에서 于가 동사로 쓰였다고 확정할 수 있는 예는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張玉金의 주장대로 以와 爲의 문법화 과정을 于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갑골 당시에 사용된 개사들을 모두 동사에서 기원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골 시기에 이미 개사로 자주 사용되는 自를 보면 복사에서 동사의 용법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자형 구조를 통해 보더라도 동사에서 개사 용법이 나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⁴²⁾

복사의 해석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여 于가 동사로 쓰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를 찾기 전에, 개사 于의 동사 기원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복사 내의 다른 개사의 연구와 금문 속 于의 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함께 비교와 분석이 이루어져 于의 용법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2) 개사 于가 '제사대상', '시간', '수혜자' 등 다양한 빈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만약 동사에서 문법화되었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동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參考文獻

- Claude Hagège, 『Adposi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oan Bybee, Revere Perkins & William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Takashima, Ken-ichi. 「A study of copulas in Shang Chinese」, 『The Memories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No.112, 1990.
-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1988(1956).
- 陳祥明, 「先秦至六朝漢語中‘于’的一種用法辨析」, 『大理師專學報』第4期, 2000.
- 崔恒昇, 『簡明甲骨文詞典』,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2.
- 管燮初, 『殷虛甲骨刻辭的語法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1953.
- 郭錫良, 「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第2期, 1997.
- 胡厚宣主編, 『甲骨文合集釋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 胡適, 「談談詩經」, 『古史辨』第3冊, 藍燈文化事業公司, 1925.
- 劉美娟, 「『詩經』虛詞‘于’和‘於’用法初探」,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第4期, 2001.
- 羅國強, 「‘于’字的동사用法探討」, 『古漢語研究』第2期, 2007.
- 羅振玉, 『殷墟書契考釋』, 臺北: 藝文印書館, 1975.
- 梅祖麟, 「介詞‘于’在甲骨文和漢藏語裏的起源」, 『中國語文』第4期, 2004.
- 孟世凱, 『甲骨學辭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9.
- 裘錫圭, 「談談殷墟甲骨卜辭中的‘于’」, 『羅傑瑞先生七秩晉三壽慶論文集』, 香港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吳多泰中國語文研究中心, 2010.
-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 時兵, 「也論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第4期, 2003.
- 王依娜, 「『詩經』‘于+동사’中‘于’的性質辨析」, 『現代語文』第12期, 2017.
- 禰健聰, 「甲骨文‘于’作동사獻疑」, 『古漢語研究』, 第1期, 2009.
- 徐清, 「甲骨文‘于’的組合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21.
- 楊逢彬, 『殷墟甲骨刻辭詞類研究』, 廣州: 花城出版社, 2003.
- 楊郁彥, 『甲骨文合集分組分類總表』, 臺北: 藝文印書館, 2005.

- 姚振武,『上古漢語語法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5.
- 喻遂生,「甲金語法劄記三則」,『甲金語言文字研究論集』,巴蜀書社,2002.
- 喻遂生,「甲骨文的‘至于’」,『中國語言學報』第11期,2003.
- 于省吾,『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1996.
- 張玉金,『甲骨文虛詞詞典』,北京:中華書局,1994.
- 張玉金,「介詞‘于’的起源」,『漢語學報』第4期,2009.
- 張玉金,「甲骨文中位事介詞‘于’研究」,『古漢語研究』第1期,2015.
- 趙 誠,「甲骨文虛詞探索」,『古代文字音韻論文集』,中華書局,1991.
- 趙 誠,『甲骨文簡明詞典』,北京:中華書局,1996.
- 趙仲邑,「論古代漢語介詞‘于’、‘於’、‘乎’」,『中山大學學報』第4期,1964.
- 戶內俊介,「殷代漢語時間介詞‘于’的語法化過程之考察」,『古漢語研究』第3期,2021.

Abstract

A Study on the Verb Usage of '于' i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Ryu, Dong Ch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verb usage of 于 i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The most actively used adposition in ancient Chinese, 于, also appears a lot in oracle bone inscriptions. After 羅振玉 first extracted 于 from the Oracle, 楊樹達 first raised the theory of verb. Since then, 郭錫良 and 張玉金 have presented examples of 于's use of verbs and raised the opinion that the use of adpositions originated from the use of verbs, but there are many objections to this.

The presence or absence of 于's verb usage is not only a key to deciphering the Oracle and identifying the origin of Chinese adpositions, but can also be an important sourc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theory of "multilingual adpositions are mostly grammaticalized in verbs" in Chinese. First of all, this paper outlined previous studies on the verb usage of 于 in the Oracle, reviewed the research results on literature data, including 詩經, and analyzed the Oracle text presented by previous researchers as examples of verb usage.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is paper, there was no clear use of verbs in the Oracle.

Key words :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the Oracle, 于, Adposition, Verb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

